

광주 고용률 전국 '꿀찌' 전남은 '최상위권'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도 광주 가장 높아 일자리 정책 변화 필요

광주의 고용률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전국 최상위권의 고용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7일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고용, 산업 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모아 발간한 '우리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자료집에 따르면 지역별 고용률(15~64세 기준)에서 광주는 60.8%로, 전국평균 64.2%보다 3.4%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부산(61.7%)과 대전(62.1%)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전체연령 고용률도 56.2%로 전국(59.4%) 평균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36.

1%(전국 40.4%), 여성 고용률은 46.2%(전국 48.4%), 남성 고용률은 66.9%(전국 70.8%)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각각 4.3%포인트, 2.2%포인트, 3.9%포인트 낮아 모든 고용률 수치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광주(42.2%)로 집계돼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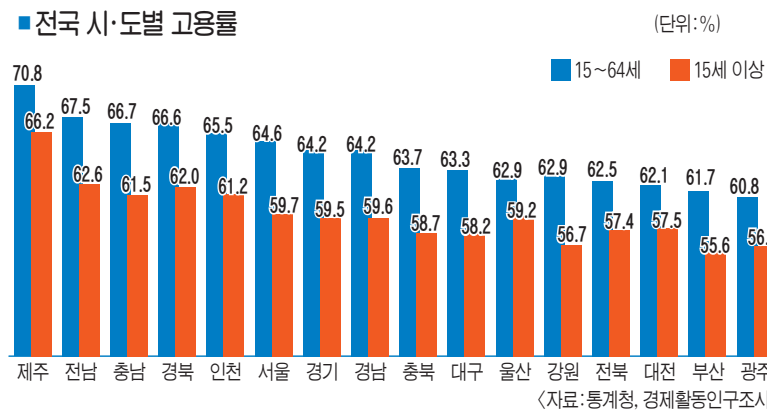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지만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3.2%로 전국평균 2.9%보다 0.3%포인트 높았으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광주는 타 대도시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

족한 것이 고용률이 낮은 한 원인"이라며 "고용률이 낮아도 인력부족율이 높은 것은,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70.8%)였고 뒤를 전남(67.5%)이었다. 두 지역의 여성 고용률은 각각 73.3%, 7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지역 고용률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청년층 주 취업 연령인 25~29세 고용률에서도 72.8%로 제주(74.0%)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이 밖에도 전국 인구(5095만명)가



운데 43.7%(2229만명)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밀집했고 서울(50.6%), 광주·부산(50.4%), 전북(50.2%), 대구(50.1%)는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간한 '우리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 지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파일은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laborstat.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세 보증금 처음으로 평균 1억원 넘어섰다

국민 절반 전·월세 살아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이 처음으로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살며 세입자의 절반 이상은 보증금이 5% 이상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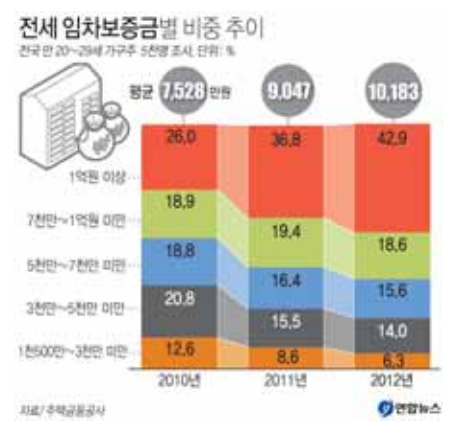
금융감독 당국은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출을 늘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6%로 2011년의 50.6%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63.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체 가구의 25.4%와 13.2%에 달했다. 2011년 까지 거의 없던 반전세가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렀다. 전세 가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임대 계약을 지속하는 평균 기간은 2.9년, 월세는 2.3년이었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의 77.6%는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깊은 애착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2011년 9047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급증했다. 2010년에는 7528만원이었다.

반전세 보증금도 전년 대비 1000만원 이상 상승한 4490만원을 나타냈다.

월세 가구주의 평균 임대료는 33만원이며 40만원 이상이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의 53.5%는 보증금이 5% 이하 올라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10% 이상 인상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구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

향후 집을 임대하려는 가구는 전체의 58%였으며 이 가운데 전세 희망자가 전체의 85.2%로 압도적이었다. 전세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올 벼 재배면적 1.9% 감소

10년간 17만ha 줄어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재배면적은 0.2%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벼 재배면적은 83만2625ha로 지난해 84만9172ha보다 1.9%(1만6547ha)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 추세로, 2004년 100만1159ha에서 10년간 약 17만ha가량 줄었다.

통계청은 형질변경과 건물 건축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시설·특용작물 등으로 밭 작물을 전환하는 추세가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논벼가 83만1355ha로 지난해보다 1.8% 줄었고, 밭벼가

1270ha로 지난해보다 44.8%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남(17만690ha), 충남(15만1814ha), 전북(12만6799ha), 경북(10만801ha) 순으로 벼 재배면적이 넓었다. 이들 상위 4개 도 면적이 전국 벼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했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4만5360ha로 지난해 4만5천459ha보다 0.2%(99ha) 감소했다.

지난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고추 재배면적은 충북과 경북 지역 주산지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경기, 전남, 경남 지역에서는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로 오히려 증가했다.

/연합뉴스



명물 무등산 수박 나왔다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매장에 선보인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당도와 향이 뛰어난 무등산 수박은 kg당 1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역 농산물 사라갈때 '얼마요' 보세요

aT광주전남지사

가격정보 소식지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가 지역의 농산물 가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식지 '얼마요'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두번째로 발간된 '얼마요'에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알뜰장바구니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번 발간된 '얼마요' 1302호에서는 여름철 강원지역에서 출하되는 배추 등 일부 채소류가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출하물량은 감소한 데 비해 지난 주 중·고등학교 개학으로 급식용 납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공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T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알뜰장바구니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노사민정협, 맞춤형 취업박람회

오늘 하남근로자 복지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 직업훈련실에서 제2회 '내일 Job go! 희망 Job go!' 맞춤형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

력사·면접 클리닉, 채용면접, 구직상담, 정신건강(구직스트레스 등) 진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아이지원 등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2013 제1회 광주광역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

일시 | 9월1일(일) 오전 9시 | 장소 | 문민정사앞 증심사잔디광장

다채로운 볼거리와 사은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한 창조도시"의 완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트레킹 연합회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광주확정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으로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는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트레킹연합회장 조 종 석 / 광주광역시 광산구 트레킹회장 양 춘 석

주 최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 주 관 | 광주광역시트레킹연합회 | 후 원 | 광주광역시

협 찬 | 도이터 용봉점, 밀레 천점, 블랙아크 흑석점

참가비 무료
트레킹 신행복장 지원